



**백악관에 한인 크리스천 목소리 전달**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8회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과 백악관 브리핑의 결과를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고했다. KCCD는 "15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 의원들,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양계 커뮤니티의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특히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흑인뿐 아니라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와 아시안 가정 폭력 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윤형 기자

## 새신자에게 이런 말 하면 다시 교회 안 온다

톰 레이너 박사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의 전문조사기관 라이프웨이의 회장 겸 CEO인 톰 레이너 박사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 thomrainer.com에 '예배 중 새 신자에게 해선 안될 말 10가지(10 Things You Should Never Say to a Guest in a Worship Service)'를 게재했다. 그 10가지 말실수는 아래와 같다.

1. 거기 제자리인데요.  
이 말은 내가 설교를 위해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직접 들었던 것이다. 그 성도는 내가 그날 설교를 위해 그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소개됐을 때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았다. 어쨌든 그녀 때문에 나는 자리를 옮겼고, 난 겁을 먹었다.
2. 예배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 말은 "당신은 예배에 늦었고, 예배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보았고, 그 가족은 교회에 다시 나오지 않았다.
3. 배우자와 같이 오셨나요?  
이 질문은 "우리 교회는 싱글은 환영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4.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예배 중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최근에 나는 한 평신도로부터 새신자가 예배 찬양 중 손을 들고 찬양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 우리 교회 성도처럼 보이지 않으시네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도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어요?"라는 뜻으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당신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라는 의미로 들을 것이다.



톰 레이너 박사

6. 이 아이들이 자제분들인가요?  
이 질문은 아이들이 부모와 닮지 않아 보인다는 말이다. 특히 아이들을 입양한 부모의 경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인종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은 미국에서는 더 피해야 한다.
7. 이 분을 지나서 저기 있는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미 앉아 있는 성도들이 그 자리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다.
8. 가족이 다 함께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나는 몇 주 전에 이것과 정반대로 한 가족을 맞이하는 교회를 방문했다. 대가족이 교회에 방문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닌가!
9. 다른 교회 방문하려고 하셨던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 사람은 새롭게 이사 와서 출석교회를 정하기 위해 여러 교회를 방문 중이었다. 이 질문을 받고 그 교회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10. 유아방이 꼭 찼어요.  
이 말은 "이 교회엔 당신의 자녀를 위한 자리가 없어요"나 "당신의 자녀는 이 교회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거예요"라는 의미와 같다.

## 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단 초청 예배

홍영환 목사, 이 땅에 천국의 복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남가주 교계를 섬겼던 남가주목사회의 증경회장들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친교했다.

### 백지영 회장 "앞으로도 후배들 격려해 달라" 요청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 엘에이 한인타운의 한 음식점에서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단을 초청, 감사예배를 드린 후 점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영국 목사의 사회로 다함께 사도신경 고백과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부른 후, 수석 부회장 엄규서 목사의 대표기도, 부회장 고재원 목사의 성경봉독, 홍영환 목사(증경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영환 목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요한복음21:15-17)란 말씀 선포를 통해 "부활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다. 베드로는 주님께 헌신하며 따르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주저 없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세 번째 다시 던진 주님의 질문에는 근심하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며 "천국 열쇠는 곧 교회의 권위이고 교회의 권위는 천국의 복인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우리 목회자들도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자. 그리하여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을 받자"고 말하며 참석한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백지영 목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를 통해 지난 48년간 함께 해 온 모든 증경회장님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하며 환영사를 대신했다.

구기조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를 끝으로 예배를 마친 후, 목사회에서 마련한 점식 식사를 나누며 선후배 목회자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이영인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 이단대책 세미나

(신천지 '추수꾼' 예방, 색출 대책 세미나)

**일시** 2015년 6월 15일 오후 5:30~9:00 (식사 제공)

**장소** 풀러신학교 페이톤 홀 (Payton Hall) 301호  
 (주차180 N Madison Ave., Pasadena 91101)



강사소개: 진웅식 소장  
 안산 상록교회(합동)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

주관: 풀러신학교대학원 한국학부 문의: (626) 584-5574



# 목회 30년 언론 15년 “내 허물 진솔하게”

## 정요한 목사 “나의 비전 나의 미래” 출판



정요한 목사의 저서 <나의 비전 나의 미래>가 출판돼 감사예배를 드렸다.

정요한 목사의 저서 <나의 비전 나의 미래>가 출판돼 5월 31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국 본명이 정정도(鄭正道)인 정 목사는 미주베델교회를 개척해 15년째 담임하고 있으며 LA 지역에서는 기독교언론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저서는 감사예배 며칠 전 육순을 맞이한 정 목사의 인생회고록이다. 그가 지난 60년 인생을 회고하며 엮은 26편의 글들, 그가 한국에서 15년, 미국에서 15년 목회하며 전한 31편의 설교들, 48편의 칼럼들, 50여 명의 지인이 정 목사에 관해 평한 글들이 한 권에 담겨 있다.

정 목사는 “내 자랑보다 허물을 진솔하게 담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출판 감사예배에는 정 목사의 가족과 성도들, 지인들과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설교는 주님세



정요한 목사가 감사예배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운교회 박성규 목사가 맡았다. 박 목사는 정 목사에 관해 “거룩한 의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한 뒤 “이 책엔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의 설교가 녹아있다”고 했다.

이어 문학평론가 최선호 목사, 크리스천헤럴드 양준호 회장, 남가주

한인목사회 백지영 회장 등이 서평과 축사를 전했다. 설교에 앞서 목회자 동료와 사모로 구성된 슈퍼드찬양대가 특별찬양을 했다.

정 목사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목회 소명을 받고 서울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베다니신학교에서 종교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증권단선교회 초대총무와 부평 벨렐장로교회 담임을 지냈다. 미국에는 1998년 이민과 1999년에 미주베델교회를 개척했으며 동시에 코리아뉴스, 미주동아일보 기사를 거쳐 크리스천헤럴드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크리스천헤럴드 사장으로 올해까지 15년째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 미주기독교언론인협의회 회장과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 남가주연세동문목사회 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 사모님 힘내세요! 블레싱 나잇

## OC교협 주최로 5년째 계속... 등록은 8일까지



지난해 OC교협이 주최한 사모 블레싱 나잇에 이 지역 목회자 사모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모 블레싱 나잇(Blessing Night)이 열린다. 5년 전부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목회자들의 아내를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 연 이 행사는 치유와 회복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는 6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 부에나파에 위치한 힐리데이인에서 열리며 식사와 콘서트, 레크리에이션으로 행사가 구성된다. 주최 측은 사모들을 위해 상품과 기념품도 마련했다.

이 행사에는 담임목사 사모는 물론, 부목사, 선교목사, 원로목사 사모도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남편을 먼저 보낸 홀사모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다. 6월 8일까지 선착순 150명을 모집하며 송규식 목사(714-699-0210)나 민승기 목사(714-615-9191)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혹은 qsong405@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이름, 교회 이름,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

# “시각장애 친구에게 빛을” 아트 컨테스트

## 오픈뱅크 후원으로 최우수에 500달러 장학금

세계 빈곤국과 한인 이민사회를 대상으로 무료 개안수술을 펼치고 있는 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서비스가 제1회 아트 컨테스트를 개최한다. 컨테스트 참가비는 20불이며 이 금액은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비용으로 전액 기부된다. 그리고 입상자의 경우 오픈뱅크의 후원으로 장학금이 수여된다.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상식은 8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최우수 당선작에는 500달러, 학년별 우수 당선작에는 1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비전케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작품들은 향후 비전케어 티셔츠 및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대중을 만나게 된다.

컨테스트의 주제는 ‘두 눈을 감았을 때 무엇이 보이나요?’로 일반인들에게 시력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시각장애인의 고통을 공감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미국의 초중고생이라면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미술 분야의 창작품이면 어떤 소재로든 참여할 수 있다. 마감 기한은 7월 15일까지이며 오픈뱅크 지점으로 우편이나

자세한 정보는 [www.visioncareusa.org](http://www.visioncareusa.org)에서 확인하거나 213-281-2617로 전화하면 된다. 비전케어는 2002년 한국에서 시작된 단체로 몽골,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34개국에서 실명 예방과 백내장 수술 등 무료 개안수술을 펼쳐 현재까지 10만명을 진료하고 1만5천 회의 수술을 진행했다.

김준형 기자

# 퓨리탄개혁대학교 학위수여식

## 8개국에서 온 학생들 학위 취득 기쁨



퓨리탄개혁대학교가 제1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퓨리탄개혁대학교(Puritan Reformed University)가 지난 5월 30일 패서디나에 있는 윌리엄캐리대학교에서 제1회 학위수여식을 거

행했다. 이날은 배효식 박사가 설교했으며 총장 김철수 박사가 8개국으로부터 온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 14일 나성삼일교회

## 한석호 담임목사 취임



한석호 목사가 나성삼일교회 담임으로 오는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 취임한다. 올해로 40년을 맞이한 한석호 목사는

이 교회는 한국교회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선구자인 고 한상동 목사를 기념하며 LA에 설립된 교회다. 한편, 한석호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대원(M.Div.)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Th.M.)에서 공부했다. 주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전화) 213-389-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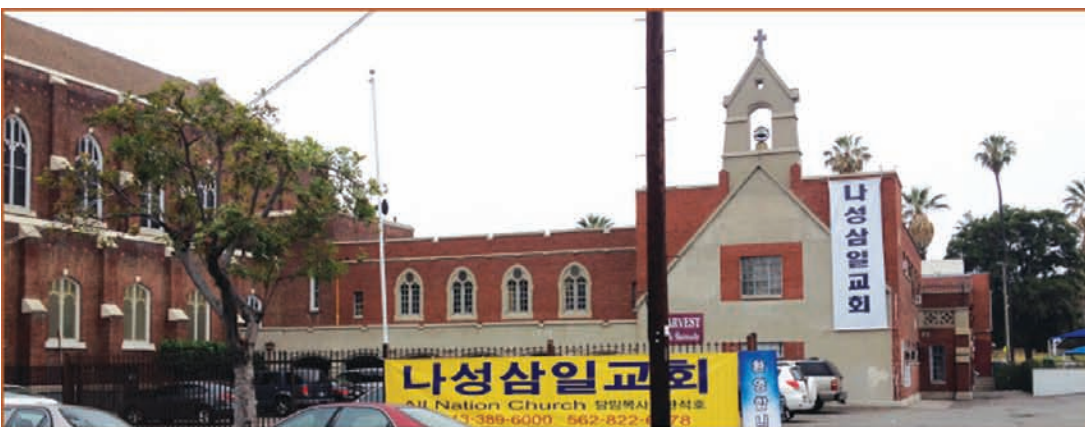
# 남 몰래 선행, 가정상담소에 5만 달러 쾌척

가정 폭력 문제 해결 등 한인 가정을 위해 사역하는 한인가정상담소에 익명의 한인 독지가가 5만 달러의 기금을 내어놓았다.

나 무보험자 한인 가정의 가정 상담 사역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 기금으로는 약 100여 가정이 상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 기금을 Resilience to Overcome Challenges for Korean Families라 명하고 상담 사역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한인 가정상담소 측은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이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의 30여 년 역사 가운데 한 개인의 후원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라면서 “한인 가정들을 건강하게 지켜 나아가는 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나성삼일교회 한석호 담임목사 취임 예배

#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나성삼일교회

## 이전의 시민교회, 삼일교회, 새시대교회, 온백성교회에서 같이 섬기던 성도님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 일시 : 2015년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
- 장소 : 1345 S. Burlington Ave, L.A., CA 90006
- 문의 : (213)389-6000, (562)822-6778



**한석호 목사**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목회자들을 깨우는 말씀 사역과 풍부한 찬양 사역의 경험을 통하여 실력과 영성을 갖춘 준비된 목회자.

일제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선도자 고 한상동 목사님을 추모하며 세워진 나성삼일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며 한석호 담임목사님의 취임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출발합니다.

# 코헨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성료

## 석사 75명·박사 34명 포함, 총 357명 수여

코헨신학대학교(설립총장 강신권 박사) 제 27회 학위수여식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오렌지카운티 토렌스에 위치한 코헨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현재 미국의 본교를 비롯, 한국, 브라질, 일본, 중국, 대만, 파라과이, 인도, 베트남, 아프리카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109개 국에 흩어져 있는 코헨신학대학교 분교를 통해 학사 248명, 석사 75명, 박사 34명(명예박사 1명 포함) 등 총 357명의 학위 수여자를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게리 코헨 박사(코헨신학대학교 공동 설립자)는 '나를 보내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리라'(요9:3-4)라는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가 질병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이웃, 또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인도

하신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고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며 "본문에서 눈뜨기를 소원하는 소경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심오한 뜻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코헨 박사는 "오늘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잔혹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ISIS의 활동이나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동성애 문제 등은 대환란 도래의 어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밝은 낮 동안의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복음 전파 사명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며 모두에게 구원의 메시지, 복음 전파 사명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헨신학대학교 제 27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 및 학위수여자들이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코헨신학대학교의 공동 설립자인 강신권 박사는 세계리더십상 등 특별상 수여에 앞서 "현재까지 세계 109개 나라에 퍼져 있는 코헨신학대학교를 통해 약 7,500여 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그중에는 총장 25명, 교수 1,150여 명, 기타 군목 등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

다"면서 "이렇게 학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학교 운영에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한편, 코헨신학대학교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비전153월드미션'과 '기독교UN' 설립을 목표로 세워졌으며, 목표 국가 153개 국가 중 현

재까지 109개 국에 485개의 분교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배출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 424-257-8171, (직통) 562-397-2121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는 www.cohenuniversity.ac다.

이영인 기자



과거 열렸던 음악회 사진. CTS는 5년째 희망 나눔 콘서트를 열고 있다.

## 이웃과 지역사회 돕는 희망 나눔 콘서트

### CTS 주최로 음악회와 골프대회

기독교TV CTS America가 오는 6월 20일 저녁 7시 30분 알바인 베델한인교회(18700 Harvard Ave. Irvine, CA92612)에서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CTS가 5년 전부터 개최해 온 이 콘서트는 전 출연진의 재능 기부와 관객의 후원으로 모금이 이뤄지며 모금액을 선교단체와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에 사용한다. 올해는 특별히 네팔 지진 구호에도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CTS 내의 문화사역단체인 CTS 여성합창단, CTS양상블, CTS아이 드림콰이어와 함께 소프라노 최정

원, 베델한인교회 성가대, 남가주장로성가대, 난타 두드림 등이 출연한다.

한편, 이 행사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CTS 방송 기금과 선교지 후원을 위한 자선 골프 토너먼트가 역시 알바인에 있는 스트로베리 팜스 골프클럽(11 Strawberry Farm Rd. Irvine, CA92612)에서 열린다. 개인, 단체, 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 방송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다. 100명을 모집하며 개인당 참가비는 120달러다.

문의) 562-565-2234

## 어린이 성추행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법

### 6월 7일, 에브리데이교회에서 관련 세미나

"우리 아이에게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및 성추행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다. 통계가 말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어린이가 속한 인종이나 문화,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여자 어린이 3명 중 1명, 남자 어린이 7명 중 1명이 17세가 되기 전에 성추행을 당한다. 가해자의 90%는 평소 이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다.

신원조회 전문기관인 베리터블 스크리닝(Veritable Screening)과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가 어린이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가인 패티 피츠제럴드 씨가 강사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성범죄를 시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와 함께 10가지 예방 수칙 등 부모

와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베리터블 스크리닝 측은 "남가주 지역만 해도 지난달 한 초등학교에서 43세 교사가 10세 이하 여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체포됐으며 2월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아시안 교사가 15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이 발생했다. 한 여고에서는 남성 교사가 10년 이상 여학생들을 성희롱 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피해 상황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실제 피해 사례는 통계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베리터블 스크리닝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나 세입자, 거주자 신원조회 전문 회사로 특별히 어린이나 노인 케어 관련 직종에 필요한 신원조회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츠제럴드 씨는 "90%의 어린이 성학대는 아이와 면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 벌어지기 때문에, 낯선 사람만을 조심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올바른 예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하며, 어린이들에게도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칙을 알려주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법"이라 강조했다.

그는 세이프리 에버 애프터(Safely Ever After)의 설립자로 어린이 성폭력 및 유괴 예방 교육 전문가다. 그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내 다수의 공립, 사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미 CNN, MSNBC 등 주요 언론에서도 그의 사역을 다룬 바 있다.

이 세미나는 6월 7일 오후 4시에 에브리데이교회 교육센터(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91325)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다. 주최 측은 4세부터 17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무료 차일드케어도 제공한다.

문의는 전화 310-356-7001나 이메일 support@veritablecreening.com로 하면 되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e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체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지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초기 한국인의 기독교 수용 형태(II)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 왔을 때, 한국인들이 이 신앙을 수용하는 형태가 크게 두 종류라고 지난 기고에서 말했다. 가장 먼저 이 신앙을 수용한 계층이 일반 서민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세상적 복 받기를 염원해 예수를 믿었다. 한 많은 삶을 살아온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해도 사회 지도층도 이 신앙을 수용했다. 지식층의 입신 동기는 물론 무산 대중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이 선교사의 도움이나 물질적 이득 혹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입교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입신 동기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초기에 유학자들이 한문으로 된 기독교 서적을 학문적 입장에서 호기심으로 접하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경우다. 둘째, 기독교를 통해 국가의 자주 독립을 쟁취해 보고자 하는 애국적 동기이다. 셋째, 기독교 사상을 통해서 민도(民度)를 높이고 부국강병(富國強兵)을 모색하여 민주적 입헌 국가를 만들어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포부에서 비롯됐다 분석할 수 있다.

지식층 기독교 입교와 활동에 대해서는 독립협회(獨立協會)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1884년 갑신정변 주동 인물 중 하나였던 서재필과 주한 미국 공사관 통역관 윤치호, 그리고 초대 주미 한국 공사관 비서관 이상재 등이 중심되어 창립했다. 서재필과 윤치호는 갑신정변 실패 후 해외로 망명한 후 10여 년 만에 귀국해 독립협회를 창설했다. 서재필은 1896년 4월 최초로 순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했고 11월에는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迎恩門) 옆 모화관(慕華館)을 개축하여 독립관으로 그 이름을 바꿨다. 이어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했다. 1896년 7월 독립협회가 창립될 때 이 협회는 국민교육과 민주정당, 자주독립, 자강혁신, 자유민권을 목표로 출발했다.

중심 인물 서재필, 윤치호는 외국에서 기독교인이 돼 입국했고, 나머지 인물도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기독교를 접해 그 정신에 이미 익숙했던 인물들이었다. 평양에 독립협회 지부가 설치될 때 안창호, 김신주 같은 인물이 중심되어 밝기한 것은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었다는 사

실을 확인해 준다.

이 협회의 목표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독립국을 만든다. 부패한 정부 관리와 정치를 혁신한다, 민중의 참정권을 위해 일한다는 것 등이었다. 초기에는 온건한 방향으로 출발했으나 차차 과격해져서 말 나오기 시작했다. 만민공동회를 열어 국정 개선을 채택하고 차차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여 일반 백성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일부의 모략과 조정의 의식으로 1898년 11월 조정은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주동 인물들을 체포해 투옥시켰다.

이 때 이승만, 이상재, 신홍우, 김정식 등이 투옥됐다. 이들이 감옥에 있을 때 언더우드, 게이일, 헐버트 등 선교사가 감옥에 자주 면회 가 성경과 존 번연의 「천로역정」(天路歷程), 무디(D. L. Moody)의 책 등 기독교 서적을 차입해 주었다. 이들은 이 서적들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고, 후에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이 된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후, 첫 기도를 드렸는데,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였다. 여기서 이승만의 마음 속에 자기 영혼 구원보다 나라 구원이 먼저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재도 “견잡을 수 없는 나라의 비운이 드디어 창상(滄桑)의 변까지 몰아왔음을 몸소 겪으면서,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나라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는 일념으로 기독교 믿음을 갖게 됐다”고 술회했다. 독립협회 간부들이 1904년 3월 석방됐을 때 이상재, 김정식, 이원규, 유성준, 김인 등이 게이일(J. Gale)이 목회하던 연동교회에 모두 입교했다. 그 해 8월 6년간 옥살이하던 이승만은 1903년 늦은 봄에 석방된 신홍우(申興雨)와 함께 감리교회에 입교했다. 이것이 당시 지식층 인사들

이 입신하는 동기가 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자기 영혼 구원보다 국가 구원을 먼저 생각한 당시 지도자들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의 입신이 철저한 개인적 회개를 거친 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 안위와 독립의 방편으로 교회를 이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른 한 예를 들면 백범(白凡) 김구(金九)는 그의 「백범일지」에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전남포 열망청년회 회원 자격으로 경성대회에 참석했다. 서울 상동교회에서 모인 이 대회는 표면적으로는 교회 사업을 의논했다 했으나 실은 순전히 애국운동 회의였다고 고백했다.

이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1934년 당시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송창근 목사는 “나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선 초대 기독교 운동이 순수한 신앙운동만이 아니었던 것을 주저 없이 말합니다. 문명과 신앙을 혼동해야…… 민족 비운을 만회하는 것도 예수 믿는 데 있고…… 예수도 믿고 민족운동도 해 보고 교화(教化)운동도 해 보고”라 술회하여 초기 지도층 인사의 기독교 입신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을 던졌다.

여기서 초기 신자들의 입신 동기가 순수한 기독교 신앙에의 입문이라기보다 일반 대중들은 이기적 동기로, 양반 지식층은 애국 애족의 동기로 이루어졌다는 추론을 내기 충분하다. 그러나 양반 지식층 모두가 그런 동기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진실로 기독교 신앙과 진리에 접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초기 한국 기독교인의 입신 동기가 다양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민족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게 하시고, 교회가 틀을 잡아 가며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 동기나 차원 높은 어떤 동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그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평범한 진리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원천임을 재삼 확인한다.

<계속>



남가주 새언약교회가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렸다.

## 남가주 새언약교회 전교인 야외예배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가 지난 5월 31일 주일 인근 공원에서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렸다. 제1부는 주일예배로 드리고 제2부는 바비큐 파티, 제3부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이어졌다. 강양규 목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행18:5-11)”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첫째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이고, 둘째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사명이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교회 문의) 213-434-1083  
www.new2011.org, 교회 주소) 3407 W. 6th St. #601 Los Angeles, CA 90020

## 전세계 한인 간호사들 서울에서 간호사 대회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간호사들의 연합체인 재외한인간호사회(회장 유분자)가 6월 17일에서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 및 제3회 재외한인간호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에 맞춰 열릴 이번 행사에는 1세대 한

인 간호사를 비롯해 2세대 간호사까지 미국, 독일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LA에서 창립된 재외한인간호사회는 미국, 유럽, 호주, 중동 등지에서 활동하는 3만여 한인 간호사들의 연합체다. 문의) 951-235-3833 okna2012@hotmail.com



남부개혁신학대학교 본교 졸업식이 5월 30일 거행됐다.

## 남부개혁신학대학교 본교 졸업

휴스턴에 위치한 남부개혁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본교 졸업식에서 LA캠퍼스의 대표인 김희창 박사가 설교했다. 5월 30일 휴스턴 뉴라이프교회에서 거행된 졸업 예배에서 김 박사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마2:19-23)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남부개혁신학대학의 LA캠퍼스는 2975 Wilshire Blvd. #415 Los Angeles, CA 90010에 있으며 6월 1일부터 여름학기를 개강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학사, 석사, 박사(문화소통학, 선교학, 목회학) 과정을 맡고 있다. 문의는 213-219-0649로 하면 된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015 VBS JOIN US

탐미디어에서 준비한 더욱 풍성한 2015 VBS 아이템... 미리 준비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50**  
VBS CD (Copy & Print)  
\$1 (Min. 50개)  
30장 \$50

**\$75 - \$60**  
VBS BANNER  
3 ft x 10 ft \$75  
2set \$130

패키지 상품  
아이템+VBS 환영배너 2set  
+CD50장 +포스터30장  
**\$250**

VBS T-SHIRT  
VBS T-SHIRT를 탐미디어에서 주문 해야 하는 이유  
1. www.group.com보다 더 저렴한 가격 (옵션)  
2. 앞면에 교회 이름까지 인쇄  
3. LA 근교 FREE SHIPPING  
어른 \$7.20 (일반사이즈 기준)  
어린이 \$4.20

Poster (11 inch x17 inch)  
\$10(5장)  
\$30(20장)  
+\$20(디자인)

2set \$135  
VBS 환영배너 2set

## VBS 어린이 선물용품 coming soon



MEDIA TOTAL SOLUTION  
**TOP MEDIA**  
www.topmediausa.com  
3170 E.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fo@topmediausa.com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junimedia.com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회 일꾼의 섬리적 역할

빌립보서 2:19-3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올바른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알아보는 사람들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확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예수님의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했을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교육이나 지식 전달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너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근본과 존재와 사명을 알아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은 베드로의 사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영감적 신앙고백의 바탕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정통한 진리 위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고백은 평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으며, 그것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두면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지옥 아닌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시려고 세워진 천국 정거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통한 진리 위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교회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늘로 통하는 영적문이 열려있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가꾸어진 믿음이 하늘 소망을 향해 결실했다고 하면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천국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44년 전에 진리정통하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성은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고, 오늘에 이르도록 하늘 소망 가꾸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 2.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디모데

교회에는 여러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너희 사정이 하나님 입장에서 진실히 파악돼서 빨리 빌립보교회에 혼란을 수습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교회의 내부에 의한 혼란을 진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길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길렀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 했고, "동역자"라고도 했으며, "나와 함께 일꾼 된 자"라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서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의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많은 제자도 있고, 신자도 있었지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때에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도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희생의 대속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듭나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가는 알곡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가 구령성과를 목적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분과 이익을 계산하면서 무엇인가 챙기려는 목적으로 일한다면 이 사람은 직업인이고 샅꾼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빌 2:21-22)고 합니다.

사도바울에게는 그 시대에 자기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복음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보배로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힘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 영적인 성과, 구령성과를 목적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이 교회 일꾼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기를 목적으로

믿음생활 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까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살고, 기도하며, 권면하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교회 일꾼의 책무이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3. 함께 군사 된 에바브로디도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계속해서 빌립보교회가 최고로 많은 물질과 기도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빌립보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과 신임을 가장 얻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에 돈을 빼내거나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반드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서 세계 선교에 요긴히 쓰이도록 할 사람이라는 신용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옥에 속한 사람들은 '아, 그 사람 식구는 뭘 먹고 살까? 빨리 집에 가서 돈 벌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아무리 부자라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리라' 하시면 그 많은 재산 다 놔두고 그날 밤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가족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의 지시를 따라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관리하고 선교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중단되었던 세계

선교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몸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받는 일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 많은 근심거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안되겠다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를 대신해서 세계선교를 아주 열심히 해 왔을 때 문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겸손하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전혀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제물로 희생하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겸손하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과정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장: Sevis I-20발행/선교사 경력급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평판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대학(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조종권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Houston, TX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 교회(독립교단)는 45년의 역사와 자체성전과 기도원을 소유한 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조건

- 1) 목회비전과 철학이 있고 사랑으로 목양 하실 분
- 2) 보수정통 복음주의 신앙 소유자
- 3) 이중언어 가능한 분(한국어,영어)
- 4)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5) ATS 승인받은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를 졸업하신 분
- 6) 미국에 체류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 7) 담임목사 나이: 31세-49세

### 제출서류

- 1) 이력서(한영 각 1부) 및 가족사진(본인, 사모 및 가족)
- 2)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각 1부
- 3) 본인 및 사모 그리고 가족소개서
- 4) 최근 설교 2편 CD 우편발송
- 5)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6) 목사 안수 증명서
- 7) 추천서 2통(목회자 2명 이상), 추천인 연락처 기재

### 접수안내

- 1) 제출마감일: 2015년 7월 30일
- 2) 제출처: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이메일 접수도 가능: kcchoffice@gmail.com  
(설교CD는 우편으로만 보내주세요)
- 3) 교회 전화: 713-937-7444
- 4) 청빙위원장: 진상철장로 (휴대폰 713-498-3545/  
email: sangkumchin@gmail.com)

### 기타

- 1) 제출서류는 우편 및 이메일 첨부로 보내주시고
- 2) 서류심사 통과된 분에게는 추가서류와 면담과 설교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보장합니다.

휴스턴 한인 교회

## 차기 담임목사 청빙

나성북부교회(kcnla.org)에서  
후임으로 사역하실 담임목사님을 찾습니다.  
본 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KPCA)에 속해 있으며,  
올해 창립 40년 입니다.

### 자격조건

- 정규신학교 졸업
- 3년 이상 이민목회 경험
-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가입 가능한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취업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이메일주소 필요)
- 가족 소개서 (사진 포함)
- 졸업증명 및 학위증명서
- 목사안수증명서
- 목회 철학 및 계획서
- 최근 설교 2회 (웹의 동영상 주소)
- 추천서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분에게 필요함)

### 제출마감일/보내실 곳

- 2015년 9월 15일/ Email : kcnlanextgen@gmail.com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모든 서류는 PDF 또는 Word파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검토할 것이며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분에 한하여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Pre-K/Kindergarten Pastor

유치부 전도사

### Descrip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SPC) is located East of Los Angeles in the city of Rowland Heights. We are searching for a part-time pastor to shepherd our preK-kindergarten (age 3-6) department. We are searching for a shepherd who will love, model, and teach our young children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 Qualification requirements are as follows:

1.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from a Bible college or theology program at an accredited seminary. Verification WILL BE requested prior to hiring.
2.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 and cultural context.
3. Fluency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not necessary but this position requires at least som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Korean parents.
4. Previous children'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we will consider all applications.
5. A person of prayer.
6. Must have a family-centered ministry mindset, as parents are a crucial part of the ministry.

### Primary duties are as follows:

1. Direct and lead Sunday worship as well as Bible study each week.
2. Direct and lead Friday night fellowship each week.
3. Create and execute annual plan and budget for the kindergarten department. The annual plan will include activities and events such as: VBS, prayer meetings, and any other fellowships.
4. Oversee and lead a staff of Bible study teachers.
5. Collaborate and work with other pastors in the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6. Report to the Christian Education pastor.

Position	Salary and Housing	Benefits
Part-time	\$1500/month	none

a Resume with picture and Testimony  
2 or 3 letters of recommendation must come directly to Clark Choi from the recommender via email or US mail  
mp3 or a youtube link to one of your sermons it would strengthen your application.

###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EMAIL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Phone : 714.328.2866

## 가장 기억되는 이름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그다음에 각자 자기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보자. 무슨 생각이 나는가?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자기 자신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왜 내가 좋은지, 왜 내가 싫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가?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리라 본다. 그것은 그 이름들에 인물의 성품과 성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 이름이 인격을 표현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능력있고 실력이 있더라도 성격이 과파하든지, 교만하든지, 무례하든지 하면, 그 이름이 능력,

실력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이름은 그 사람의 됬됨이를 총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지금 이 시간 솔직해 보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다”(시124:8)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권세와 위엄, 그리고 영광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18:10)

아무리 좋은 사람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몇 번만 부르면 귀찮아진다. 그러나 불려도 불려도 감동되는 이름이 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우리의 구원자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구세주되신 그 이름 예수 앞에 당신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조용히 생각해 보자.

## 불편한 예수 (VII)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왜 청소년들이 예수를(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호에서 제기한 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각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 6. 예수나 성경의 가르침이 부모의 잔소리와 너무 흡사하게 들린다

청소년은 꾸준히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생각해 보라. 그들은 10년, 15년 이상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부터 부모의 가르침과 조언을 불편한 잔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라,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남을 배려해 주어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어른을 공경해라, 동생이나 형과 사이좋게 지내라 등의 가르침 자체엔 문제가 없다. 이것은 옳은 가르침이고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고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은 그저 부모의 지시를 귀찮아 한다. 너무 자주 반복되는 가르침에 대해 “이제 좀 그만 하세요”라고 거부한다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첫째, 부모의 가르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아이를 하나만 낳아 키우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도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자녀교육이 아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며 때로는 꾸중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엔 문제가 없다.

둘째, 부모가 자녀를 다루고 대화하고 가르치는 방법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절해야 한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덜 성장된 그런 존재이다. 물론 가정, 학교, 교회 같은 곳에서 옳고 그릇된 것에 대해 많이 들어왔기에 어느 정도 잘못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다. 그러나,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이 덜 발달되었기에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를 잘 절제하지 못하며, 이기주의적인 마음가짐(타

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 종전같이 부모를 하늘같이 여기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낮을 볼듯 그런 내용, 콘텐츠, 메세지, 이미지,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접해왔고, 만나는 친구의 반 이상이 소위 말하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왔고, 사회나 학교같은 곳에서 어른을 공경하라는 메세지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침없이 이루라고 배우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대로 취급하고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성장을 도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부모가 크리스천이라면 그저 도덕과 윤리만을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다. 크리스천 부모라면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오히려 부모의 부적절한 반응이나 요구, 또는 꾸중으로 인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과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은, 성장한 자녀들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에 대해 배웠고,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가 배풀어준 존중과 배려를 통해 부모의 사랑과 헌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을 많은 한인 부모가 잘 하고 있지만, 후자(청소년기에 부모가 배풀어주는 배려, 여유, 쿨함 등)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필자가 NCA란 학교를 운영하며, 학생을 다루고 부모와 대화하며 느낀 바이다.

부모의 잔소리나 가르침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미성숙한 청소년은 부모와 거리를 두려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까지 거부하기도 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한 그냥 청소년만 탓하면 안된다. 모든 부모가 더 현명히, 적절히 청소년을 다루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견뎌도록 도와야겠다. 부모의 실수로 아이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자녀 양육 방법 및 접근 방법을 오늘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 (계속)



# 한국교회, 한 마음 한 뜻의 동성에 반대

한기총 · 한장총 · 한교연 · 미래목회포럼 등 개신교 단체들 기자회견 열어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함께 결의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한국 개신교계가 동성에 반대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 1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이하 한장총),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윤재 목사),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등이 함께 하며 '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수원 목사(한장총 대표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아닌 기독교적 용어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동성애자는 사람 자체는 사랑하지만 죄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애는 국민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퀴어퍼레이드에서 보여준 반나체 음란행위 등은 건전한 시민문화 행

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시간에 박종언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사무총장)는 "헌법 상 자기결정권 혹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국가가 과연 관여해서 통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선진국 인권 차원의 주장들이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발언이 조심스러운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동성애 축제를 보며 더 이상 인권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서울시청 광장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 중 '문화'라는 말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연론회 부이사장)는 "동성애가 운명적 성향이 아니라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동성애를 일반적으로 비판하면 종교적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성애란 성의 욕구를 무제한으로 분출시키고 성의 욕구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네오마시즘이 인권으로 포장되어 젊은이들에게 번지고 있는 것"

이라 설명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을 경멸하고 무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품으면서 동성애 인권이라는 파도만 보지 말고 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의 본질을 바로 보자"고 당부했다.

양병희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는 "고무적인 것은 한국교회의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함께 한 것"이라 말하고, "한국교회와 언론이 하나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급히 모여 토론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추후 토론을 통해 앞으로 활동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 했다. 박종언 목사는 "NCKK만 인권이라는 이유로 (기자회견) 자리에 없는데, NCKK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에서는 윤덕남 목사(한기총 총무)의 사회로 김준규 장로(한교연 사무총장)의 기도, 양병희 목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이윤재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의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방향과 조직에 대한 설명 등도 있었다. 윤근일 기자

# 무슬림 선교에는 건강한 교회가 필수

FIM국제선교회 주최 '이슬람선교학교' 성황리에 마쳐



서울 대림동에서 21기 이슬람선교학교 수료사진 ©FIM국제선교회

FIM국제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이슬람선교학교가 호반(湖畔)의 도시 춘천 예광교회(담임 조영준 목사)에서 3월 17일 시작하여 5월 26일까지 10주 동안 은혜 가운데 마쳤다.

유해석 선교사는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를 시작으로 세 강좌를 강의하였으며, 김동주 교수의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소윤정 교수의 '이슬람 여성', 송기호 선교사의 '이슬람 교리'와 차경준 연구원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 등 총 10강좌가 있었다.

같은 기간 FIM선교센터(서울 대림동)에서 진행된 이슬람선교학교도 지난 5월 28일에 수료식을 가졌다. 성공회신학대학교 교수인 김성찬 장로는 수료소감을 통하여 "비잔틴 기독교제국의 타락이 이슬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고 유럽교회의 쇠락으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비잔틴 기독교제국과 유럽교회의 모델이 되지 않아야 하며, 한

국에서의 이슬람 성장은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FIM국제선교회 대표인 유해석 선교사는 이날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 "이슬람 인구가 몰려오는 현실에 대한 교회의 대안으로 첫째, 교회가 건강해야 하고 둘째, 기독교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신앙 전승율을 높여야 하며 셋째,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 18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열방이 주님을 찬양케하며 넷째,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계속 일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FIM국제선교회가 주최하는 이슬람선교학교는 선교신학을 바탕으로 이슬람선교를 위한 강의를 진행되고 있다. 모든 강좌들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에 강의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이슬람 선교학교는 10월 8일에 개강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이날 집회에서 이승호 목사(맨 뒤)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조직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과 직제협의회(이하 신앙과직제협) 1년째를 맞아, 지난 5월 22일 직제 일치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예장 통합 총회가 위치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총무 김명주 목사, 이하 NCKK)가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신앙과직제협 해산을 촉구하는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환 목사, 이하 통합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신앙과

# 통합, NCKK 개혁 못할 거라면 탈퇴해야

통합 비대위, 신앙과직제협 1주년 맞아 반대집회

직제협 참여 서명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천명하고, 변질된 서구 신학을 맹종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NCKK는 1년 전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와 함께 신앙과직제협을 결성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이에 대해 규탄하는 소리가 계속돼 왔다. 특히 신앙과직제협 결성 당시 참여한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당시 총회장이었던 김동엽 목사가 총회의 주인이나 허락없이 대표로 서명하면서, 교단 목회자들이 신앙과직제협 참여 철학을 요구하며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통합 내 목회자들은 지속적으로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에 대해 반대했고, 총회장을 상대로 총회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위 강도를 점점 높이면서, 통합총회를 향해 "신앙과직제협 결성을 주도한 NCKK를 개혁하지 못할 거라면, NCKK를 탈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시위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이승호 목사(예승교회)는 "외부 도움없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중시 삼아 세워진 한국교회는, 타 대륙 기독교와 달리 제국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종교의 기반위에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며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가톨릭과의 신앙과직제협 결성으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후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통합총회와 NCKK에 전달, 신앙과 직제 일치 시도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NCKK는 지난 2013년 WCC 10차 부산총회 개최와 관련해 한국교회 여러 목회자들에게 지탄받은 데 이어, 가톨릭과의 신앙직제협 결성을 주도해 연이어 규탄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NCKK 회원교단 중 최대 규모인 예장 통합 목회자들이 NCKK 탈퇴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대응 움직임을 나타냈으니,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리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9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9:00 PM

Tel: 213-739-1022









www.SuperMirapharm.com

#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 미라팜-22

##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 /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지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몰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제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인외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갑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기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서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속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러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교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뇌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옴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카락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감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를 복용 후 멈추었다.
-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툭 떨어졌다.
-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 (50대 여 외국인) - 체제가 유방암 수술 후 재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판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담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현금회전위한 원가파괴 초대박 진주보석 쇼, 엘에이 일원서 펼친다!!



**진**주 전문회사 고베펠이 불황타게 긴급제한 현금 회전 위한 원가 파괴 초대박 세일을 엘에이 한인타운 등 엘에이 일원에서 펼친다.

행사일정은 오는 6월 7일(일) 가든그로브 라마다 플라자

부터 시작해 9일은 다이아몬드 바 할리데이 인 그리고 10일부터는 3일간 엘에이 한인타운 아로마센터와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올림픽 길의 로텍스 호텔에서 열린다. 7일동안 엘에이 한인타운을 비롯해 엘에이 일원에서 고베펠사의 화려한 진주보석 향연이 펼쳐지게 된다.

특히 이번 진주보석 쇼는 현금회전을 위한 원가 파괴 행사로 지금까지 열렸던 어떤 행사보다도 진주보석을 값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원가 파괴로 진주 보석 파티가 펼쳐진다. 미키미토 급의 아코야 진주도 원가 파괴 대박세일에 나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석쇼는 선물용으로 진주 펜던트 200여 점과 진주, 홍산호와 유색 스톤 핵진주 50세트 그리고 다양한 진주목걸이, 반지 귀걸이 300개 등 신제품 등 모두 5000여점의 보석이 준비됐다. 특히 이번 원가파괴 세일에는 아코야 진주 목걸이를 대거 준비했는데 1줄짜리 진주는 1599불짜리를 499불에 두줄 아코야 진주목걸이는 999불에 전시장에 포진된다. 고베펠 사의 진주 목걸이는 일본공법에 레이저를 이용한 손기술 세공으로 그 정교함이 뛰어나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여성들 사이에서는 인기 제품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불티나게 팔리는 명품이기도 하다.

또한 고베펠이 일본 공법에 손기술이 뛰어난 한국 강남세공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홍산호와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등 칼라스톤 세트를 선보이

자 매혹적이면서도 동양적인 단아함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한인 여성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베펠 사 관계자는 요즘 들어 칼라스톤이 인기품목이 되면서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진주보석 물량 확보보다 이들 칼라스톤 세트 확보에 더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베펠은 이와 함께 천연 양식 한줄 비드 목걸이(6-7밀리)의 경우 특별 세일로 단돈 99달러에, 두줄 비드목걸이(6밀리-7밀리)는 259달러에 대방출한다.

고베펠은 “이번 행사는 불황타게 긴급제한 형식에 의한 현금 회전 원가 파괴 세일인 만큼 최대 규모의 ‘핫’ 세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신이 나는 세일 폭에 기쁨을 배가 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서둘러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엘에이 일원 행사 일정**

**가든그로브 Garden Grove**  
**일정:** 2015년 6월 7일 일요일, 단 하루  
**장소:** 라마다플라자 Ramada Plaza 2층 퍼시픽룸  
**주소:**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다이아몬드 바 Diamond Bar**  
**일정:** 2015년 6월 9일 화요일, 단 하루  
**장소:** 홀리데이인 Holiday Inn Diamond Bar 1층 Gateway 2&4  
**주소:** 21725 E. Gateway Center Dr, Diamond Bar, CA 91765

**엘에이 한인타운 Los Angeles 1**  
**일정:** 2015년 6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3일간)  
**장소:** 월셔 아로마센터 Aroma Wilshire Center - 5층  
**주소:** 368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엘에이 한인타운 Los Angeles 2**  
**일정:** 2015년 6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2일간)  
**장소:** 로텍스호텔 Rotex Hotel - 2층 "Banquet Hall"  
**주소:**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 고베주얼매트가 당뇨병 등 질병 치료에 큰 도움 준다는데 그 근거는?



### 각종 부인병 및 불면증에 개선 효과

고베펠사의 고베주얼매트가 당뇨병 등 각종 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잠만 자도 저절로 병을 예방해 주고 힐링에 도움이 되는 잠자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에 출시한 이후 병을 치료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이 제품은 자수정에서 나오는 신비의 온열 '빛'에 의한 각종 병 치료용 온열 매트로 미주 한인 동포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

뉴욕과 버지니아 등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사는 동부 지역에서 먼저 출시돼 인기를 끈 이 자수정 힐링매트는 당뇨병 환자와 여성들의 요실금과 냉대하 등 부인병에 특효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그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당뇨병과 허리, 목 통증, 그리고 불면증에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볼티모어 등 동부 지역에서 1, 2, 3차분이 완판된 데 이어 최근 500여장이 든 40피트 컨테이너 고베주얼매트 4차분이 태평양을 건너 롱비치항 배에서 내려 엘에이 창고에 입고, 다시 완판을 기다리고 있다.

고베펠사가 2년여의 각별한 준비 끝에 마침내 일명 '클레오파트라 잠자리'로 불리면서 온열과 보석이 함께한 의료용인 고베주얼매트가 서서히 병치료 매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자수정 양을 보유한 고베주얼매트가 당뇨병과 여성질환 등 각종 질병에 특효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 근거는 암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온열 요법이다. 신비의 보석 자수정에서 나오는 고베주얼매트의 1도 온열 기적의 면역력 5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옛 고서인 '동의보감'에도 자수정의 효능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자수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피부를 곱게 하며, 아기를 임태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즉 이 자수정 매트가 우리 피부와 접촉하게 되면 10센티에서 15센티 깊숙이 원적외선이라는 생명의 빛을 발산시키면서 침투해 10-14 마이크로 파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곧바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과 정신을 안정시키면서 면역력 증강으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에 도움을 준다는 것.

이 고베주얼매트는 싱글과 더블 사이즈, 그리고 프로페셔널 등 3종류가 출시되는데 더블 사이즈의 경우 30킬로그램이다. 가격은 싱글 사이즈가 Regular 3,499달러에서 특별가로 2,799달러, 퀸 사이즈는 Regular 3,999달러에서 특별가로 3,499달러, 휴대가 가능한 프로페셔널 사이즈는 2,599달러에서 1,999달러로 할인된 가격에 시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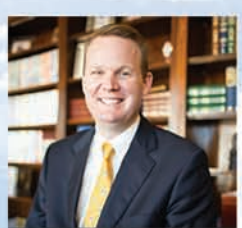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박사과정 (한 주간, 인턴십으로 강의)**  
 교육 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석사과정 (100% 온라인)**  
 온라인 목회학 석사  
 신학연구석사  
 신학연구상담학석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ies Emphasis)**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입니다.  
**입학자격:** M.Div. 학위 소지자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일반 교육학 박사(Ed.D.)와 동반 교육학 석사(Ed.S.)와 동등한 위치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입학자격:** M.Div. 학위 + 교육학과목이수자 혹은 기독교교육학석사학위 + 신학과목이수자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모델 연구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학자격:** M.Div. 학위 소지자



**온라인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Online)**  
 (온라인) 정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본교만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입학자격:**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사이트: [www.mbts.edu/ko](http://www.mbts.edu/ko)

연락처: 816-414-3754, [ks@mbts.edu](mailto:ks@mbts.edu)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opm Duplex	Dual Scan ADF 80opm Simplex	Emperor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Simitri with Blowers \*Optional : Fax & Finisher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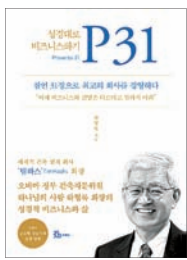


### 신간 추천

####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하형록 | 두란노 | 240쪽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두 번의 심장이식 수술! 그 후 펼쳐지는 드라마같은 하나님의 경영 수업! 이 책은 팀하스의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비즈니스 현장에 어떻게 주님의 기업을 세워 가시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한 ‘창업 전략서’이자 세상 기업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정리한 ‘경영 전략서’다.



####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홍성건 | 예수전도단 | 304쪽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저자 홍성건 목사의 신간이다. 이 책은 교회와 기독 공동체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을 일으키는 예수전도단의 훈련 철학과 비전의 집대성이다.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은 명제만으로 삶을 이끌어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오늘날의 기독교 메시지 사역과 훈련 사역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가 되어줄 것이다.



#### 바이블랜드 교회들1

조현삼 | 생명의말씀사 | 288쪽

저자는 수년 간 탐방식 성지 순례가 아닌 ‘성경 지리 연구’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역사가 펼쳐졌던 그 땅을 직접 찾아 나섰다. 직접 현장을 걸어보고 둘러보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 것이다. 저자는 이런 시도를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텍스트만으로는 받을 수 없었던 공감과 감동을 경험했다. 책을 읽다보면 무지의 허물을 벗는 감동이 있을 것이다.



####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김남준 | 생명의말씀사 | 328쪽

이 책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갖는 웅장한 신학적 구도 안에서, 어떻게 신자가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남겨 놓은 신 고난에 참여할 것인지를 낱말이 보여준다. 그리고 낱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과 고난에 동참할 때, 현대 교회의 정체나 퇴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격려한다.



## REVIEW

#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나도 있길 원합니다”

### 처참한 ‘고난의 행군’이 아름다운 ‘사랑의 행군’이 될 때까지

“짜사랑일지라도 진하게 사랑하자. 언젠가 아이들이 ‘나도 누군가에게 진한 사랑을 받았던 귀한 사랑이다’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책은 지난 20년간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고, 여명학교를 섬기면서 배웠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탈북 형제들을 통해 직접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이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 또 아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고 한다. 저자가 여명학교를 섬기면서 눈

치 채운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있으시고, 그분이 탈북 동포들과 학교에 아주 가까이 귀를 대고 있으시다는 것이다. 다른 기도는 더디 들어주셔도 여명학교 아이들의 기도는 바로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 그런 많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통일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탈북 동포들이 단지 ‘살려고’ 우리의 생활권에 이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살려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까지 오려면 기적이 있어야만 가



사랑으로 행군하다 조명숙 | 규장 | 248쪽

능하기 때문이다. 그 기적을 허락하시어 이곳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여

러 번 넘기게 하면서까지 지명하여 이곳에 보내신 사람들이 그들이다. 많은 북한 동포들이 안타깝게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구호) 시기라고 불리던 때, 북한에서 3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북한 인구 2천만 명의 15퍼센트에 달하는 수이다. 또한 이는 6·25 전쟁 때 남한군과 북한군과 유엔군과 중공군의 전사자(戰死者)를 합친 118만 8,168명(국방부 자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

이다. 뿐만 아니라, 최빈국인 에티오피아에서 1983년에서 1985년까지 아사(餓死)한 100만 명의 세 배에 달한다.

저자는 “그분이 자녀들의 고통과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신 일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인 ‘성령 통일’의 동역자가 되어 ‘고난의 행군’을 겪은 탈북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사랑의 행군’을 경험하게 하고,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

우리 집에는 20가지 이상의 화학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세제는 친환경 무공해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가 대신 합니다.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는 토양에서 발견한 생물에 이로운 균들을 이용하여 산화를 막는 효소를 연구 개발하여 화학제품을 대신한 친환경 다용도 세제 제품입니다.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거울,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 가꾸기를 한 개의 이레 다용도 친환경 세제로 통일하여 비용과 물을 절약할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킵니다.



### 특별 사은품

이레 에미나 1 Box(1kg: 4인 가정 1년 사용량), 『밥들』 구입하신 분에게 『생생팩 5Kg용』 1장 특별 선물을

【가정 필수 제품: 밥들】  
밥 지을 때 밥술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 선물 제품: 생생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군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김파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군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가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잘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무 작물을 사할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2~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3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문의: Yirrh Wellbeing Co. **이레 웰빙** Tel:323)316-6815



# 모르고 믿으면 미신, 하나님은 지성 요구하셔

조성노 목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

조성노 목사(푸른교회 담임)가 최근 '믿음인가, 미신인가' (넥서스 CROSS)를 펴냈다. 조 목사는 이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아는 만큼 믿는다는 것"이라며 "모르고 믿으면 미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지난달 28일 종로 토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30년 역사의 한국 개신교는 이미 담보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현실은 그동안 계시와 성서에 대한 정직한 지식, 기독교의 오랜 전통, 교리들에 대한 바른 해석없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 짓는 일에만 열성을 둔 필연의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동의해 마지않는다"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통렬한 자성을 바탕으로 성서와 교리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여, 기초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알고 믿으라고 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편리한 대로 믿을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믿음인가, 미신인가  
조성노 | 넥서스CROSS | 304쪽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신앙하는 데에도 지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무지한 신앙이 아니라 지성적인 신앙을 바라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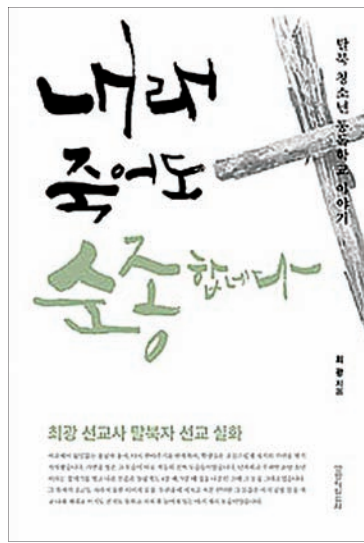
'믿음인가, 미신인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교의학적 명제들과 성서의 난해한 주제들을 간결하고도 명쾌하게 전달한 설교 집이다. '하나님', '창조', '인간', '구원', '개혁', '교회', '종말' 등 총 7개의 주제에 따른 40편의 설교문으로 구성돼 있다.

조 목사는 40편의 설교 중 가장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것으로, 구원론을 다룬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벧전 3:18~19)'을 꼽았다. 그는 "예를 들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간 어디 계셨느냐' 하는 물음에 난 '지옥(음부)에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영혼이 3일간 지옥에 계셨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를 고백해 왔는데,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를 빼는 대신 각주를 달았다. 이는 교리 자체를 깊이 성찰한 결과라기보다는, 교인들의 심정과 정서를 배려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종말론과 관련해 조 목사는 "저는 종말에 관심이 많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식과 긴장감이 없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것인데, 오늘날은 '때'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한계이고 약점이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도 종말론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해진 기자

# "탈북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 깨닫게 되자 변화돼



내래 죽어도 순종합니다  
최광 | 생명의말씀사 | 296쪽

"선생님, 한국에 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오면 모든 고생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고, 앞길이 암담하고...", 이 지겨운 삶을 언제까지 왜 계속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래 죽어도 순종합니다(생명의말씀사)〉에서는 그런 탈북민들과 함께 '탈북 청소년 통독학교'에서 24시간 동고동락했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교회는 그들의 집이 되었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저자인 최광 선교사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성경통독과 북한선교 사역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국내에서 황금종교회와 열방빛 선교회를 이끌며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통독학교를 지도하고 있다.

"신앙이라는 새로운 힘이 내면에 임하기 시작하자 학생들은 많이 흔들렸다. 오늘은 술에 빠졌다가 내일은 PC방에 빠졌고, 친구들과 노름에 폭 빠져다가도 기도 시간에는 영영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한동안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기도 했다. 그들에게 신앙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 많이 힘들 것이다. 나는 그들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사람은 흔들리면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책에는 그야말로 태풍처럼 세차게 흔들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여럿 나온다. 밤중에 칼을 들고 들어와 행패를 부린 학생, 고주망태가 되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 게임에 중독되어 독이 오른 학생들을, 저자를 비롯한 열방빛선교회 선생님들은 품고,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는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양육하는 교회였지만, 평일에는 통독학교가 되었다. 물론 밤에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숙소 역할을 했다. 사역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하느라 정신이 핑핑 돌 정도였다.

"기존의 한국교회는 일이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다. 일을 위해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일은 정말 효율적으로 잘 돌아갔고 화려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남은 것은 은혜보다 상처가 더 많다."

그래서, 저자는 처음부터 사역을 일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맞추다 보니, 일은 언제나 매끄럽지 못했고 효율은 떨어졌으며 엉망이 되어버릴 때도 많았다. 뛰쳐나가 버리는 탈북 청소년들을 계속 다시 받아주다 보니, 통독학교에 질서가 없어지기도 했다. 사역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고 줄기차게 건의했다. '사랑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었다. 그러나 최광 선교사의 생각은 달랐다.

"탈북 청소년 학생들은 잘못을 해도 꾸짖어주고, 돈을 주고, 용납해 주고, 자기들이 난장판을 벌여도 학교가 자기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엔 자기들로 머릿수를 채워 사역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태도를 바꿨다."

'막가던'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원했던 것은, 인정사정 없는 일 중심의 교회도, 효율과 성과만을 추구하는 선교센터도 아니었다. 세상이 금금해서 나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곳, 정신없이 놀다가도 생각하면 돌아올 수 있는 곳, 배가 고프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받아주고 채워주는 그런 곳, 바로 그들이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집'이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나의 아빠 엄마가 그리웠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피우던 학생들은 오랜 기도와 훈련을 통해 변화되고 다듬어져, 어느덧 '성경 박사'가 되어 해외 선교현장으로 나아가 그곳 빈민가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아빠 엄마가 되어주고 있다. 저자는 "이들은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과 뜻을 분명하게 아는 금처럼 소중한 씨앗들"이라며 "나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의 일꾼들로 키우려고 한다"고 했다. 앞으로 이들의 뒤를 따라, 수많은 탈북민 청년들이 거둬낸 북한 선교 일꾼들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대용 기자

# "삶의 목적 찾기 위해 노력해 보았는가?"

'내가 왜 사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한 마디

하루하루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사나?' 혹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라는 의문에 휩싸이는 순간이 있다. 또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해 설교를 듣지만, 변화되는 것 없이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눈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머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왜 그쪽을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안종필 교수는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목적은 무엇인가  
안종필 | 쿰란출판사 | 264쪽

22년 동안 신학대학원 강단과 세미나 현장에서 1만 5,000여 목회자들

들에게 설교 스피치 강의를 인도한 안 교수가 신간 「목적은 무엇인가」(쿰란출판사)를 통해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라"고 도전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원리와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사람을 '운유인'이라 칭한 저자 안 교수는 운유의 속성으로 '절제, 긍휼, 겸손, 자족'이라는, 꼭 실천해야 할 네 가지 필수 도구를 제시한다.

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장애물로 '교만, 무식, 유혹, 분노'를 짚어낸다. 안 교수는 이것들을 4행(行)과 4불(不)로 구분해 제시하고,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자의 계획을 찾아간다.

안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운유의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책을 읽는 동안에는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읽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영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부인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현 FDA임상 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균인명인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이 송 씨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CD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iz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기하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완료,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상세화자, 책자, 반쪽달걀 인쇄 등)  
주님미디어닷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상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미디어닷컴 홈페이지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지 선물을 진행, 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또는 방문지에게 꼭꼭 선물할 수 있는 각종 주님미디어닷컴입니다.

전도용품 세트 1,000set (\$180)  
교공공용 세트 10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용 및 전도용품, 각종 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불이유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상품을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1, Los Angeles, CA 90057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

월: 북어구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차구이 오리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디리빙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갈비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떡볶이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비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 (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트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01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 L.A. County Representatives Share Practical Ways Clergy Can Promote Mental Health

BY RACHAEL LEE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LACDMH) recently hosted its 14th annual Conference on Mental Health and Spirituality, themed "Journey Called Life," on May 28, during which speakers from diverse faith backgrounds -- including Native American spiritists, Buddhists, Hindus, and Christians -- spoke on various topics regarding mental and emotional health. Christian speakers led sessions on helping those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ngaging faith communities to fight against human traffick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mental health in an individual.

In particular, one workshop touched upon the Clergy Academy Program offered by the LACDMH, which was formed to help equip clergy with knowledge to better serve their communities in the area of mental health.

Currently, there are 10 different sites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Clergy Academy, and the program offers classes on over 27 different topics, including depression, life stage transitions, bullying, and pornography addiction, to name a few. Classes such as "Navigating the LA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System" and "Complementing Caring Congregations" try to help clergy to better understand how to access and provide the resources that their congregation needs for their mental health.

During the workshop itself, three representatives from the LACDMH who currently lead the Clergy Academy gave attendees a glimpse of what the workshops and seminars provided by the Clergy Acad-

emy look like, and also explained some basic ways clergy could help to promote mental health in their communities.

For example, they advised clergy to help reduce the stigma and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mental illness by changing the language surrounding mental illnesses.

"Instead of calling someone 'schizophrenic,' identify them as 'a person with schizophrenia,'" advised Adrienne C. Hament, one of the LACDMH representatives who lead the Clergy Academy.

"Let them know that the mental illness does not define them," said Luis Orozco, who also leads the Clergy Academy program. "A man with a mental illness -- he is a father, a worker, a husband. He is so much more than just a disorder."

The representatives also did a demonstration to show an example of the interactive activities clergy can participate in through the Clergy Academy. Volunteers acted as a therapist, a client suffering with psychosis, and "voices" in the mind of the client. As the client tried to listen to the therapist explaining the side effects of a certain medication, the volunteers acting as "voices" incessantly chattered indecipherable words and sentences in his ear. Orozco elaborated that through such activities as this, the program hopes to equip clergy with dee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what individuals with mental health may be going through.

The Clergy Academy classes are usually three hours long, and each series is 10 sessions long. All of the classes are free of charge. Classes are provided on evenings and weekends, and representatives come to the location requested by the church or organization.



Some 650 Korean Christians in the Torrance, CA area gathered with Nick Vujicic to pray for the city of Los Angeles.

## Nick Vujicic and Hundreds of Korean Christians Pray Together on Behalf of Los Angeles

BY RACHAEL LEE

Nick Vujicic, evangelist and author of "Life Without Limbs," prayed together with some 650 Korean Christians early on Saturday morning for revival in Los Angeles.

Referring to the recent events of unrest in Ferguson, Baltimore, and other cities, Vujicic said at the 6 AM prayer meeting, "God has called all of us to pray for revival, because people need Jesus today like never before."

Vujicic, who also prayed with a group of Latino Christians that same morning at 5 AM, has been planning for a concert event to take place on Father's Day (June 21) in Los Angeles called "Unify LA," and have been praying together with these diverse communities lead-

ing up to the event.

"God desires our churches to come together as one," he said, and added that "there's something beautiful in each culture."

As a concert event, Unify LA is will feature music and "messages of hope," but more importantly, the organizers hope that the event will be an opportunity for Angelenos of all backgrounds to unite as one and stand in solidarity. Los Angeles city officials have been invited to participate.

"In light of recent riots in Baltimore ... And remembering the Watts riots 50 years ago this year," the Unify LA marketing director wrote to Los Angeles Mayor Eric Garcetti and the city council, "we decided it would be preemptive to host an event promoting Unity here in Los Angeles."

"You need to be there," the letter continues. "You get to demonstrate that LA is leading the nation by having her people come together in UNITY. You get to show that [you] and your team are proactive, not just reactive to LA. Your presence will make a powerful statement."

Vujicic challenged those at the prayer gathering with Korean Christians to come to the event and stand together as one, and to invite neighbors that are like and unlike themselves, from diverse backgrounds.

"As one church, let us pray, forgive, and strive for righteousness," he said.

Unify LA will take place at the Staples Center from 5 PM, and tickets to the event includes the Sparks game, which starts at 2 PM.

##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VIII:

### Bridging the Gap between Generations in the Church



Pastor Kiwon Suh is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New Life Vision Church in Los Angeles, CA.

BY RACHAEL LEE

Pastor Kiwon Suh has been serving the English congregation at New Life Vision Church (NLVC) for five years. However, his experience with the Korean American church goes beyond his pastoral experience. He has served in Korean American churches as a worship leader previous to becoming a pastor, and as a part of the 1.5 generation -- those who had lived in Korea for during childhood and moved to grow up in the U.S. -- he himself has grown up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as well. While a seminary student, he also researched and wrote about the issues and dynamic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Pastor Kiwon shared his thoughts and experiences with the Korean immigrant church in this interview.

*What does it mean to be a part of the "1.5 generation" for you?*

People say that I'm part of the 1.5 generation, but I actually like to call myself the "bridging" genera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spiritually, relationally, and culturally. I think for me, having the kind of background that I have is special because I'm

able to relate with both generations, and in that way, be a bridge for them. I try to help our EM to understand the first generation a little better by doing small things like translating our senior pastor's letters, which are written in Korean, into English for them. I even call our English congregation "The Bridge" because my hope for them is that they will also become the bridge for the first and third generations.

*Out of your own experience with English ministries, what do you think are some challenges as well as strengths of the second generation?*

I think a great strength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that I've seen many of them being willing to teach and serve at church. In my English congregation, almost half of them are teaching. This shows me that EM members are finding joy and value in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I also saw that their hunger to grow is genuine -- that's why they love preachers and pastors who actually speak what they do, and live out what they say, like Francis Chan or David Platt.

I think some challenges, though, include that they have this tendency to be comfortable in how they

are living. I would receive prayer requests about how people want to read the Bible more, pray more, and grow more spiritually, but attendance in Bible studies or prayer meetings would stay very low. It seems like they don't want their walk with God to disrupt their comfort -- but when comfort is breached, there's actually a deeper sense of peace in Christ.

*Do you have any leadership system within the EM?*

No, we don't. I actually used to be hesitant in asking people to be on leadership because they were people who were already teaching in youth or children's ministry -- I was afraid of burning them out. But these days I'm realizing that I may have been over-sheltering them, and I'm thinking of ways I can raise a leadership within EM.

*What do you mean by "over-sheltering"?*

I just realized that no one can really avoid burnout -- it's inevitable in life. I learned that I have to equip people to be able to overcome burnout. And I think one way that people can overcome burnout is by taking time to intentionally rest -- not just sitting and doing nothing, but actually taking time to reflect on what aspects they need to renew or restore. Resting has to be a commitment as well, and there has to be a growth and learning from it.

*Does your EM have small groups or life groups?*

We used to, but we stopped that for a while. These days I lead discipleship programs in separate groups. It's a very focused program where everyone that is involved is mutually committed to the program. This commitment actually worked to foster more belongingness within the group. I also try to bring about more vulnerability within discipleship groups by asking hard questions about their in-

securities and fears, so that they can dig deeper in themselves through the questions. Allowing this to happen totally changed the atmosphere of the entire group -- it benefits the person who is sharing, and those who are listening as well.

*How is your experience with other pastors at church?*

We have about ten to eleven other full-time pastors at our church, and we all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other pastors really appreciate my relationship with them, because it shows them that EM is not just a separate identity, but that we're one church.

I also respect our senior pastor, Reverend Choon Min Kang. Something I especially respect about him is that he really values respecting and honoring people around him.

*What advice would you give to other EM pastors?*

I would just encourage them to have a posture of humility, and remember that every pastor is a servant of God. When we grow in humility, and show respect to the first generation by submitting to them and entrusting the church to them, we also earn their trust. And once you earn their trust, you also gain more freedom in ministry.

I would also encourage them, when they're looking for potential churches to serve in, to not just look only at the EM, but look at the church as a whole, and consider the senior pastor as well. What can I learn from him? What do I respect about him? EM pastors often say that they want to be mentored by the senior pastor, and I think the best way to help senior pastors to mentor them is by sincerely respecting them as well.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 "How Do I Keep My Child Safe from Sexual Abuse?"

### Seminar to Discuss Abuse Prevention Tips

BY JUNHYEONG KIM

*"Those kinds of things wouldn't happen to our child."*

*"He isn't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do such a horrible thing."*

These are two major misconceptions an average person might have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But statistics on the issue show a completely different phenomenon. Across all demographics, one in three girls, and one in seven boys, are sexually abused before the age of 17 according to statistics, and 90 percent of children who had been sexually abused know their abuser.

Veritable Screening, a background check screening company, and Church Everyday will be co-hosting a free seminar on child safety, particularly on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The seminar will feature Pattie Fitzgerald, an expert in the field of childhood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who will be sharing ways parents and children could identify potential abusers, and 10 prevention strategies that parents could use in advance to protect their children.

"Child sexual abuse is more common than most realize," Veritable Screening said, and added that numerous child sexual abuse cases have occurred recently within the Southern California area. These incidents "underscore the need for parents to receive the appropriate training to keep their children safe," Veritable Screening stated.

The seminar will be taking place on June 7 at 4 PM at Church Everyday's education center. Free child care will be provided, and RSVP is recommended to provide adequate child care. For more information and to RSVP, contact Veritable Screening at support@veritablecreening.com.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